

##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의 개념과 수준

윤 혜 경

이지연<sup>†</sup>

인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을 개념도를 통해 밝히고,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개인의 역량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60명의 중학생들이 또래관계 역량에 대해 작성한 진술문을 18명의 학생이 산출, 종합,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다차원 척도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56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출된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개인 역량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79개의 또래관계 역량의 구체적인 진술문이 산출되었으며, 이를 개념도 분석을 한 결과 또래관계 역량은 '정서적 특성', '내적 강인성', '집단 내 조화', '사회성 기술', '물질적 요인', '신체적 요인', '외적 강인성' 범주로 구분되었다. 둘째, '집단 내 조화'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자신의 역량 수준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중학생들은 신체적인 조건, 물질적 요인 등의 외적인 범주들도 친구관계 역량의 요소로 보는 반면, 고등학생들은 관계형성과 촉진으로 구분되어지는 내적인 범주를 또래관계 역량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념도를 통하여 중학생의 또래관계 역량을 7개 범주로 밝혀냄으로써,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래관계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또래관계 역량, 발달단계, 개념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1  
E-mail : becoming@incheon.ac.kr

또래관계는 청소년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에게서는 또래에 대한 의존성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칭찬과 인정 및 수용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성적 성숙으로 인해 정서적 만족을 위한 새로운 욕구와 감정이 생기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과 해방을 위해 새로운 정서와 욕구가 생긴다. 청소년은 이전에 가족이 제공해주던 심리적 지지를 받기 위해 또래에게 관심을 돌린다(최정미, 김미란, 2003; Frankel, 1990; Sebald, 1986). 즉 청소년기는 생애 다른 어떤 시기보다 또래에게 관심이 쏠려 있고 자기가치감이 또래에 의해 좌우된다.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사회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천수혜, 2008). 그리고 또래와의 어울림은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정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성윤, 2000; Bishop & Inderbitzen, 1995). 청소년기의 친밀한 친구와 또래관계는 이 시기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가족관계를 넘어 또래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여기고 성장할수록 부모나 친척, 교사보다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등을 배울 수 있다(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또래와의 우정을 통해 협동성과 상호존중, 대인관계 감각(sensitivity)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능력은 이후 다른 사

회적 관계들에 확장, 적용된다(최성윤, 2000; Smoller, & Youniss, 1982).

또래관계는 인지적 발달을 자극하고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Erwin, 1998; Ramsey, 1991), 스트레스 환경에서 정서적 지지를 해줌으로써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onrad & Hammen, 1993; Pryor-Brown & Cowen, 1990).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안정감은 자기존중감과 상관이 있다(김지영, 2009; Keefe & Berndt, 1996). 또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인지적, 신체적 능력과 외모를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오원정, 이은혜, 2000).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으며, 또래관계에 만족하는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면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또래와 갈등이 많은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정선진, 2003). 이것은 학부모의 걱정에도 연결이 되는데 중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우려가 친구관계라고 하였다(연합뉴스, 2009년 8월 16일).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시켜주며 여러 가지 심리적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 하겠다.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아동의 능력을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로 사용되고 있으며(Edgar, 1980), 어떤 결손이나 결함보다는 긍정적인 능력을 더 강조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Asher & Hymel, 1981). 또한 Webster와 Mckechnie(1978)는 역량이란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Ogbu(1981)는 역량을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또래 역량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또래역량이란 또래에게 잘 수용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반응하고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은주, 1995).

청소년기에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부적응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인기로의 발달로 이어진다(은혁기, 1999).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또래 및 성인 집단과 적응하지 못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건강하고 건전한 자아발달에 집중하기 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소비하게 되며, 이차적으로는 정신병, 신경증, 비행 및 일탈행동을 야기한다. 또 이유 없는 반항, 태만, 가출, 사회적 위축, 집단 따돌림, 등교거부, 자퇴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래관계의 다양한 측면과,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또래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구나 또래에게 잘 수용될 수 있는 행동반응을 하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주요도구로는 아동의 또래와 또래관계의 지각에 관한 코넬면담(Cornell Interview of Children's Perception of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CIPF; Kernberg, Clarkin, Greenblatt, & Cohen, 1992)이 있다. 이것은 8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단답식 81개 문항이고 나머지는 주관식으로 발달적 적절성, 사회적인 기술, 자존심의 세 가지의 소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또 다른 척도로는 또래관계의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Scale: FQS)로 이은해와 고윤주(1999)가 Mendelson과 Aboud의 McGill 또래관계 설문지(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를 번안하여 연구하였다. 또래의 긍정적 지원 기능을 알아보는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재의 즐거움'의 6개영역과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 그리고 또래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 등 총 9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기술인 또래관계 역량은 문화적인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의 척도들 모두는 외국에서 개발된 또래관계의 질에 관한 검사들을 번역한 것으로, 한국사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 덕목으로 여겨지는 한국사회의 특수성(한성열, 1994)과 상호의존적이고 집단 내 조화와 구성원간의 정서적 의존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국 청소년의 성향(김윤명, 2009)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인간관계와 정서적 지원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질문하였을 때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하였고 그 다음이 학업성취도로 나타났다(김의철, 박영신, 2004).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학업적 적응,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합하고 한국의 청소년 초기에

숙하는 중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또래 관계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개인의 역량수준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개념도 방법은 연구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요소,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데 유용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특히 개념도 방법은 참여자들이 가진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생각을 실제로 반영하는 연구방법으로 아직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그것들을 쉽게 이해되는 그림이나 지도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정찬석, 2004;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200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총 66개의 또래관계 역량의 구체적 내용이 산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개념도 분석 결과 또래관계 역량은 '배려성', '타인존중', '대인민감성', '사회성 기술', '인상관리', '집단내 조화', '내적 강인성'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또한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개인의 역량수준은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성 기술'과 '내적 강인성' 범주가 중요도와 역량 수준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한편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기보다는 그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구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학제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를 간주하는 장휘숙(2004)의 견해에 따라 설정했다. 장휘숙(200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초기를 약 11세에서 14세까지로 하여 대략 중학교시기를 이야기 하고, 청소년 중기를 약 15세에서 18세까지로 대략 고등학교시기를 이야기 한다. 청소년 후기는 약 18세에서 20세까지로 대학재학 시기를 일컫는다. 만족스런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래에 대한 신뢰감은 청소년기 어느 단계에서나 모두 중요하나, 초기에는 사회 정서적 지원과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갈등해결이, 중기에는 정서적 지원과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평한 갈등해결이, 그리고 후기에는 도구적인 지원과 공평한 갈등해결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즉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만족감이 높았으며, 청소년 중기인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 못하더라도 또래를 배려할 때 만족감이 높았으며,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들은 공평하게 해결할수록 또래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또한 중학생들에게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고등학생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대학생들에게는 필요할 때 도움 받는 것이 또래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또래에 대한 기대를 연령별로 조사

한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또래에 기대하는 바가 많으며, 이러한 기대는 사춘기에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였다. 특히 서구의 경우 2~8학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놀이에 관련된 기대가 감소하고 그 대신 친밀성, 공유 활동 및 충성심 등 인정에 관련된 기대가 증가한다고 한다(Reisman & Shorr, 1978). 이처럼 어린 아동일수록 공유 활동이나 놀이 같은 물리적 요인에 집중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밀감이나 신뢰 및 수용 같은 심리적 지지 요인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또래에의 동조가 증가하는 시기로 청소년기 또래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은 청소년의 비행, 약물 복용 및 우울증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직결된다(Merten, 1996). 또한 청소년 초기단계에는 또래관계에 따른 독특한 기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또래관계와 연합되는 태도, 가치, 행동들이 나타나고 또래관계 특성(qualities)에 대한 기대를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Bigelow & La Gaipa, 1980; Clak & Bittle, 1992). 이런 점에서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은 또래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소지가 아주 높은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경은, 2008; Moran & Eckenrode, 1991).

그러므로 사회 정서적 지원과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갈등해결을 중요시하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정서적 지원과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평한 갈등해결을 중요시하는 청소년 중기 이후라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의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개인의 역량수준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더불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발달단계에 맞는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자료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의 역량은 어떠한가?

둘째, 또래관계 역량에 대해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중요도는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또래관계의 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또래관계 역량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인천에 소재한 K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 후 160명의 학생들에게 진술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30명을 뽑은 후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참여자 18명을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중학생이 8명, 여자 중학생이 10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5.95세였다. 이전 단계에서 분석된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과 개인의 역량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 K중학교와 J중학교에 설문지 17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14부

를 제외하고 총 156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별로는 남자 중학생이 85명이고, 여자 중학생이 7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99세였다.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이 무엇인지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의 중요도와 개인별 역량수준을 알아보고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단계이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중학생 160명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만 있다면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6). 본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 회기는 연구자 한 명이 진행하였으며 그룹별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참여자들에게 목적을 설명한 후, “주변에서 또래관계가 좋다고 생각되는 또래들에게서 관찰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및 태도 특징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 봅시다”라고 회기를 시작하여 진술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둘째 단계는 아이디어 종합단계이다. 진술문 작성자들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30명을 뽑은 후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참여자 18명을 선정하였다. 생성된 진술문 내용을 명

료화하여 진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때 가능한 아이디어 원래의 뜻을 유지하도록 수정을 최소화 하였다. 선정된 18명은 160명이 작성한 진술문을 토대로 79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분류 단계이다. 산출된 진술문을 무선회 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가까운 묶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카드에 기록하여 진술문 세트를 제작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한다. 모든 진술문은 둘 이상의 파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문항은 하나의 파일에만 분류할 수 있다는 조건만을 제시하였다(Paulson & Worth, 2002). 한 파일에 묶인 진술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 파일에 가장 부합한 명칭을 쓰도록 한다. 진술문 분류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도출된 진술문 분류 결과를 개념도 분석을 위한 다차원척도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던 진술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이다. 개념도 분석을 위해서 진술문에 대한 분류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했다.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든지 두 개의 문장이 한 군집에 포함되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총 18개의 유사성 행렬(79X79)을 만든 후, 다시 역코딩 하여 비유사성 자료로 변환한 후 18명의 파일을 합하여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나타난 x, y 좌표 값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다.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으로 군집의 수를 결정한다. 분석결과 나타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진술문의 중요도와 개인의 역량수준 평가 단계이다. 설문지에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개인의 역량수준을 5점 척도로 표시하고, 추가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킨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또래관계 역량과 역량의 중요도와 개인별 역량 수준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또래관계 역량 개념도

또래관계 역량의 내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종합한 결과 79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79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217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365)를 충족시킨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최한나 등, 2008 재인용).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진술문들을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총 7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때 군집의 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에서 1미만의 거리 값에서 군집의 수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

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 명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개념도는 또래관계 역량을 설명하는 각 진술문들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함께 분류된 빈도를 반영하므로, 각 점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보다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서 가까운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관계 역량은 7개의 범주로 이루어져있다. 각 범주명은 ‘정서적 특성’, ‘내적 강인성’, ‘집단 내 조화’, ‘사회성 기술’, ‘물질적 요인’, ‘신체적 요인’, ‘외적 강인성’으로 나타났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과 범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 ‘대인관계 역량’과 ‘정서적 역량’, 상하로 ‘외적인 역량’과 ‘내적인 역량’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념도 상에서 왼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사회성 기술’, ‘집단내 조화’의 범주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외적 강인성’, ‘신체적 요인’, ‘내적 강인성’의 범주이고, 위쪽으로는 ‘물질적 요인’, ‘사회성 기술’, ‘외적 강인성’, ‘신체적 요인’의 범주이고, 아래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집단 내 조화’, ‘정서적 특성’, ‘내적 강인성’의 범주이다.

또래관계 역량의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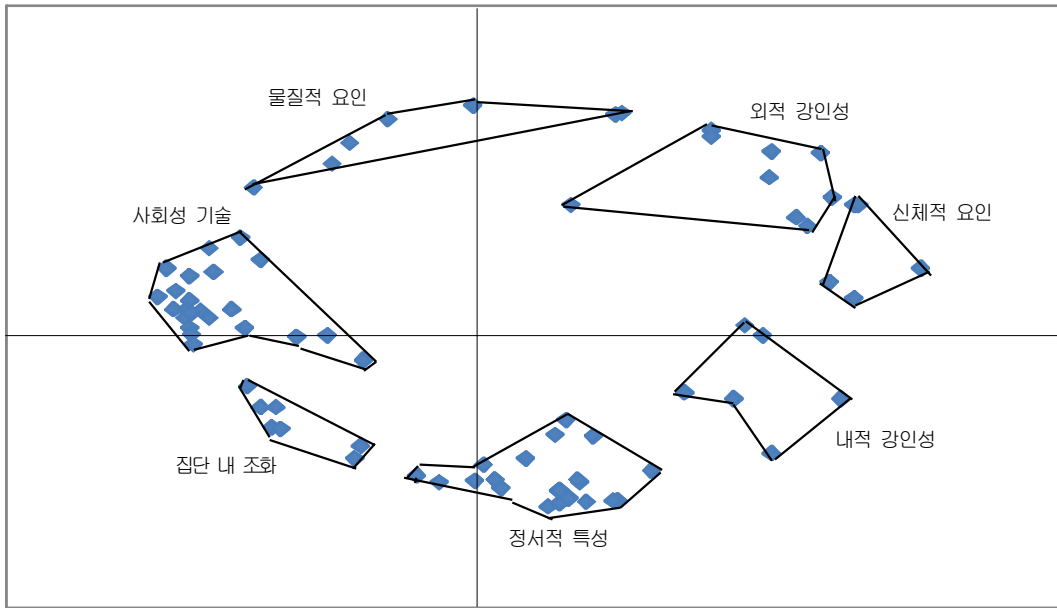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 관계 역량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특성’ 범주에는 ‘착하다’, ‘활발하다’, ‘친근하다’, ‘성실하다’, ‘유머 감각이 있다’ 등으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두 번째, ‘내적 강인성’ 범주에는 ‘머리가 좋다’, ‘꿈이 크다’, ‘통이 크다’, ‘똑똑하다’, ‘긍정적이다’ 등으로 이는 개인의 내적인 자신감과 장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집단 내 조화’ 범주에는 ‘예의 바르다’, ‘매너가 좋다’, ‘배려심이 많다’, ‘인사성이 좋다’, ‘기분을 잘 맞추어준다’ 등으로 이는 집단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는 범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사회성 기술’ 범주에는 ‘고민을 잘 들어 준다’, ‘부탁을 잘 들어 준다’, ‘슬플 때 위로해 준다’, ‘먼저 말을 건넨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한다’ 등으로 이는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시켜나가는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 번

째, ‘물질적 요인’ 범주에는 ‘자신을 잘 꾸밀 줄 안다’, ‘돈거래가 확실하다’, ‘용돈이 많다’,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등으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보여 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여섯 번째, ‘신체적 요인’ 범주에는 ‘잘 생겼다’, ‘목소리가 크다’, ‘힘이 세다’, ‘키가 크다’, ‘너무 뚱뚱하지 않다’로 신체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하는 능력을 보여 주는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외적 강인성’ 범주에는 ‘공부를 잘 한다’, ‘게임을 잘 한다’, ‘운동을 잘 한다’, ‘싸움을 잘 한다’, ‘노래를 잘 한다’ 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게 보여 지는 외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구체적인 범주별 진술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또래관계 역량 중요도 인식과 역량수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또래관계 역량의 중



표 1. 또래관계 역량의 범주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범 주	진술문	중요도 (평균)	역량수준 (평균)
	1. 착하다	3.91	3.74
	2. 활발하다	3.90	3.90
	3. 친근하다	3.87	3.78
	5. 성실하다	3.64	3.48
	7. 유머감이 있다	3.79	3.58
	8. 항상 웃는다	3.64	3.67
	15. 성격이 좋다	4.01	3.74
	19. 노력을 한다	3.73	3.79
정 서 적	20. 자신감이 있다	3.76	3.72
	21. 용기가 많다	3.72	3.61
	24. 리더십이 있다	3.46	3.30
특 성	26. 순수하다	3.24	3.26
	30. 운순하다	3.08	2.90
	36. 책임감이 강하다	3.66	3.61
	39. 인내심이 많다	3.58	3.54
	44. 친근하다	3.93	3.71
	46. 수다스럽다	3.44	3.48
	48. 장점이 많다	3.60	3.53
	49. 편안하다	3.97	3.90
	56. 신중하다	3.56	3.40
	60. 적극적이다	3.75	3.50
	13. 머리가 좋다	2.94	3.03
내 적	22. 꿈이 크다	3.50	3.69
	31. 통이 크다	3.23	3.04
강 인 성	35. 다재다능하다	3.28	3.08
	47. 긍정적이다	3.86	3.79
	53. 똑똑하다	2.79	2.76
	67. 애교가 많다	2.80	2.70
집 단	4. 예의바르다	3.75	3.62
	6. 매너가 좋다	3.86	3.67
	16. 배려심이 많다	3.88	3.76
내 조 화	17. 인사성이 좋다	3.72	3.74
	42. 기분을 잘 맞추어준다	3.90	3.79
	62. 의리가 있다	4.17	3.91
	75. 이해심이 많다	3.96	3.75
신 체 적	9. 잘 생겼다	2.97	2.85
	40. 목소리가 크다	3.08	3.07
	43. 힘이 세다	2.77	2.83
요 인	51. 키가 크다	2.70	2.72
	57. 너무 뚱뚱하지 않다	3.20	3.14

표 1. 또래관계 역량의 범주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계속)

범 주	진술문	중요도 (평균)	역량수준 (평균)
	18.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	3.71	3.68
	23. 고민을 잘 들어 준다	3.99	3.88
	25. 진지할 때와 장난칠 때를 안다	4.01	4.06
	37. 친구의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 해준다	4.01	3.84
	38. 화를 잘 안 낸다	3.42	3.30
	41. 눈치가 빠르다	3.71	3.71
	45. 남을 잘 웃긴다	3.67	3.46
	55. 잘 도와준다	3.72	3.69
	59. 잘 빌려 준다	3.50	3.44
사 회 성	63. 정보를 잘 나눈다	3.78	3.62
	64. 아플 때 옆에 있어 준다	3.69	3.71
	65. 이야기를 재미있고 조리 있게 한다	3.67	3.47
기 술	66.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	3.53	3.49
	68. 단점을 고칠 수 있도록 말해준다	3.52	3.35
	69. 진심으로 사과한다	4.12	4.10
	70. 부탁을 잘 들어준다	3.76	3.69
	71. 분위기 파악을 잘 한다	3.91	3.90
	72. 약속을 잘 지킨다	4.04	3.87
	73. 나쁜 길로 빠질 때 잡아준다	3.92	3.58
	74. 슬플 때 위로해 준다	4.04	3.86
	77. 칭찬을 많이 해 준다	3.33	3.38
	78. 먼저 말을 건넨다	3.63	3.55
	79.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다	3.79	3.62
	10.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2.99	3.12
물 질 적	12. 옷을 잘 입는다	3.19	3.02
	14. 자신을 잘 꾸밀 줄 안다	3.37	3.20
	28. 돈거래가 확실하다	3.24	3.27
	29. 용돈이 많다	2.52	2.61
요 인	34. 돈을 잘 쓴다	2.73	2.89
	76. 맛있는 것을 많이 사 준다	2.89	2.87
	11. 공부를 잘 한다	2.70	2.75
	27. 집안 분위기가 좋다	3.19	3.31
외 적	32. 일을 잘 처리 한다	3.47	3.25
	33. 게임을 잘 한다	2.85	2.98
	50. 복장이 단정하다	3.14	3.15
강 인 성	52. 싸움을 잘 한다	2.56	2.44
	54. 운동을 잘 한다	2.90	2.88
	58. 화셋거리가 많다	3.17	3.10
	61. 노래를 잘 한다	2.94	2.72
전 체		3.49	3.42

요도 인식과 연구 참여자들의 각 개인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각 역량의 중요도는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아주 중요하다)에서 평균 2.56에서 4.17까지 분포하였고,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3.497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역량에 대한 본인의 수준평가는 2.61에서 4.10까지로 분포하였고 전체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는 ‘집단 내 조화’가 가장 높았으며(M=3.89), ‘신체적 요인’이 가장 낮았다(M=2.94). 개인의 또래 관계 역량수준에 대한 평가는 ‘집단 내 조화’가 가장 높았으며(M=3.75), ‘신체적 요인’이 가장

낮았다(M=2.92). 각 진술문의 중요도 평균과 본인의 역량수준을 평가한 점수의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또래관계 역량 중요도 인식과 역량수준 평가 간 차이

브레인스토밍 집단에서 도출된 79개의 또래 관계 역량에 대한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과 본인의 역량수준 간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개념도 방법을 통해 중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도와 그 역량에 대한 실제 자기의 수준이

표 2. 평가 간의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정서적 특성	중요도	3.68	0.58	.10	1.90
	역량수준	3.58	0.57		
내적 강인성	중요도	3.20	0.69	.05	.77
	역량수준	3.15	0.62		
집단 내 조화	중요도	3.89	0.64	.14	2.34*
	역량수준	3.75	0.64		
사회성 기술	중요도	3.76	0.55	.10	1.89
	역량수준	3.66	0.54		
물질적 요인	중요도	2.99	0.71	.01	.13
	역량수준	3.00	0.70		
신체적 요인	중요도	2.94	0.75	.02	.27
	역량수준	2.92	0.74		
외적 강인성	중요도	2.99	0.69	.04	.60
	역량수준	2.95	0.61		
전 체	중요도	3.49	0.53	.07	1.81
	역량수준	3.42	0.47		

\*p<.01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봄으로써 중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또래관계 역량에서 개발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즉, 각 범주의 중요성의 인식과 자신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간의 차이를 이해하여 보다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 틀을 제공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또래역량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해 자신의 또래관계 역량수준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내 조화’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자신의 역량 수준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 중요도와 역량수준을 평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을 탐색적으로 밝히고 이를 기초로 각 개인의 또래관계 역량의 인식구조 및 중요도와 개인이 지각한 역량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로 선정된 18명은 160명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작성한 진술문을 토대로 하여 79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들 진술문을 분류하고 평정 절차를 걸쳐 개념도를 그린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역량은 7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역량을 설명하는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개인의 역량수준 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은 7개의 범주에서 ‘집단 내 조화’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 ‘대인관계 역량’과 ‘정서적 역량’, 상하로 ‘외적인 역량’과 ‘내적인 역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인관계 역량’은 또래관계에서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정서적 역량’은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적 강인성’은 밖으로 나타내어지고 보여 지는 강한 능력을 말하고, 내적 강인성은 지능적, 성격적으로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사회성 기술’이나 ‘집단 내 조화’ 등의 대인관계 역량 이외에도 ‘신체적 요인’, ‘외적 강인성’과 ‘물질적 요인’의 외적인 역량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중학생들의 또래관계 지도에서 신체적인 조건, 외모, 복장, 용돈 등 외적인 면만을 중요시하여 또래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또래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잘 챙겨오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 등도 중요하게 여겨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을 보고한 연구(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의 또래관계 역량의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출된 총 66개의 또래관계 역량을 개념도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 역량은 ‘배려성’, ‘타인존중’, ‘대인민감성’, ‘사회성 기술’, ‘인상관리’, ‘집단 내 조화’, ‘내적 강인성’의 7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과 범주의 분석 결과,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좌우로 ‘관계형성 역량’과 ‘관계촉진 역량’으

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범주 명을 비교해보면 중학생의 인식에서는 ‘외적 강인성’, ‘신체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범주들이 나타나고 고등학생들의 인식에서는 외적으로 보이는 범주들 대신에 좌우로 ‘관계형성 역량’과 ‘관계촉진 역량’으로 구분되어졌다. 이는 중학생들은 외적인 범주들도 또래관계 역량의 요소로 보는 반면, 고등학생들은 관계 형성과 촉진으로 구분되어지는 내적인 범주를 또래관계에 대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에 대한 기대를 할 때,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지지 요인을

중요시하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Reisman & Shorr, 1978 재인용).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또래관계 역량의 범주별 중요도와 역량수준을 평정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결과(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에서와 같이 친밀관계 영역의 역량(Larson, Whitton, Hause, & Allen, 2007)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 내 조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집단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조화롭게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중학생들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들은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

표 3. 고등학생의 평가 간의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배려성	중요도	178	5.98	0.87	.99	9.41***
	역량수준		4.99	0.99		
타인존중	중요도	178	6.14	0.85	.95	9.12***
	역량수준		5.19	1.02		
대인민감성	중요도	178	6.03	0.84	.99	9.34***
	역량수준		5.04	0.97		
사회성 기술	중요도	178	5.93	0.84	1.08	9.25***
	역량수준		4.83	1.05		
인상관리	중요도	178	5.83	0.88	.84	7.28***
	역량수준		4.99	0.96		
집단 내 조화	중요도	178	5.92	0.91	1.05	8.80***
	역량수준		4.87	1.02		
강인성	중요도	178	5.98	0.88	1.08	9.07***
	역량수준		4.90	1.15		
전체	중요도	178	5.97	0.80	1.02	10.07***
	역량수준		4.95	0.92		

\*\*\* $p < .001$

인식과 역량수준 평가에서 모두 ‘집단 내 조화’와 ‘사회성 기술’이 높았고 ‘신체적 요인’, ‘물질적 요인’, ‘외적 강인성’이 낮았다. 중학생들은 또래와 조화를 이루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능력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체적인 조건이나 가정환경 등 외부로 보여 지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또래관계 역량수준평가에서 ‘신체적 요인’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여 진다.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2차 성징이 발달하게 되어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에 따른 심리적 미숙으로 공포와 불안한 정서 상태를 갖고 두려움, 자의식과 열등감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용희, 2001)와 관련이 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집단 내 조화’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또래관계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해 자신의 역량수준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들과 조화를 이루며 집단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는 범주에서는 중요도에 비해 자신의 역량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그 외의 다른 범주들은 중요도와 자신의 역량수준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단 내 조화’가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또래를 사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역량은 중요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존의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

계 역량의 연구(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에서는 고등학생들은 모든 진술문과 범주들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자신의 역량수준 평가는 낮게 나타나고, 모든 범주에서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자신의 역량수준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이진화, 1983; 정순지, 1990; Beneson & Dweck, 1986),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이존중감에 대한 지각이 낮아진다(이진화, 1983; 정순지, 1990; Beneson & Dweck, 1986; Eccle et al., 1989; Harter, 1988; Wigfield et al., 1991)는 연구와 관련이 있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수용 받고 이해하고자 하는 기대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래와 학업, 외모 등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비교 평가하게 되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김희화, 김경연, 1999) 자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또래관계의 부정적 경험이 적고,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시간이 많고,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 중요도에 비해 자신의 역량수준을 고등학생들보다 높게 인식하는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160명, 종합하는 과정에서는 18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참여하였고,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역량수준의 평가는 인천시내 소재 두 곳의 중학교 156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기초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수는 개념도 방

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방법론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연구 참여 대상이 인천 지역 두 곳의 중학교 2학년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 단계별로 초등학생, 대학생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각되는 또래관계의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역량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을 연구 한다면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지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또한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역량과 부정적인 역량을 비교 한다면 또래관계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념도 방법으로 도출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과 역량 수준 평가는 추후에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래관계 역량의 진술문,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수준 평가에서 나타난 자료들은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고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 역량의 중요도와 역량 수준 간에 차이를 보인 범주는 ‘집단 내 조화’, ‘정서적 특징’과 ‘사회성 기술’이었다. ‘정서적 특징’은 주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로 이 범주는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중학생들의 또래관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내 갈등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래 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집단 내 조화’ 영역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성 기술’ 영역의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 고등학생의 또래관계 역량의 비교에 근거하여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추어 중요도와 역량수준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낸 영역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또래관계 역량 인식을 활용하여 또래관계에서 지켜야할 규칙, 예절, 배려, 양보 등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상담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산출된 또래관계 역량에 대한 경험적 탐색 결과는 현 시대에 알맞은 청소년의 또래관계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측정도구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도구들을 번역한 자료여서, 중학생의 또래관계 역량 탐색 결과는 국내 청소년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또래관계 역량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관계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더불어 중, 고등학생의 또래관계 역량 비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단계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게 된다면 성장하면서 많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역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 참고문헌

김윤명 (2009).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한

- 국민의 특성. 청소년포럼. 한국청소년문화 연구소, 21, 10-34.
- 김윤희 (2001).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과 발달 과업으로서의 교육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가설. 한국교육연구소소식, 55(0), 79-87.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청소년 문화와 부모와의 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지영 (2009). 남녀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요인과 자아존중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화, 김경연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37(5), 1-14.
-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98 청소년 상담연구 63.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연합뉴스 (2009년 8월 16일). “교내 언어폭력에 시달릴라.”
- 오원정, 이은혜 (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의 관계. 생활과학잡: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14(1), 36-48.
- 은혁기 (1999).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실태와 대인 만족에 대한 조사 연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제2회 안양 청소년상담 세미나자료. 안양시청소년 상담실.
- 이경은 (2008).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20(2), 225-242.
-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13(3), 105-121.
- 이은주 (1995). 빈곤층 아동의 또래관계 역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화 (1983). 연령, 성별, 사회 층적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순지 (1990).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지각과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선진 (2003).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 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찬석 (2004).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측면 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천수혜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운 (2000).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한나 (2007).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차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관계 역량. *상담학연구*, 9(1), 181-197.
-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5-107.
- Asher, S. R., & Hymel, S. (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 D. Smythe (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Beneson, J. F., & Dweck, C. (1986). The development of trait explanation and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Child Development*, 57, 1179-1187.
- Bigelow, B. J., & La Gaipa, J. J. (1980).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values and choice. In H. B. Foot, A. J. Chapman, & J. 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15-44). New York: Wiley.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of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to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476-489.
- Clark, M. L., & Bittle, M. L. (1992). Friendship expectations and the evaluation of present friend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ild Study Journal*, 22, 115-135.
- Conrad, M., & Hammen, C.(1993). Protective and resource factors in high-and low-risk children: A comparison with unipolar, bipolar, medically ill, and normal moth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ccle, J. S., Wigfield, A., Flanagan, C. A., Miller, C., Reuman, D. A., & Yee, D. (1989). Self-concepts, domain values and self-esteem: Relation and change at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57(2), 283-310.
- Edgar, D. (1980). *Introduction to Australian Society*. Sydney: Prentice-Hall.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 Frankel, K. A. (1990). Girls' perceptions of Peer Relationship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 69-88.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nson (Eds.), *Integrative process and socialization only to middle children*. NJ: Lawrence Erlbaum.
- Kane, M. & Trochim, W. M.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Keefe, K., & Berndt, T. J. (1996). Relations of Friendship Quality to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 110-129.
- Kernberg, P. F, Clarkin A. J., Greenblatt, E., & Cohen, J. (1992). The Cornell interview of



- peers and friends: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and Adolescent Psychiatry* 31(3), 483-489.
- Larson, J. J., Whitton, S. W., Hause, S. T., & Allen, J. P. (2007). Being close and being social: Peer rating of distinct aspects of young adult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136-148.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2), 130-132.
- Merten, D. E. (1996). Virility and Vulnerability; Responses to Rejection by Nonaggressive Junior High school boy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 5-26.
- Moran, P. B., & Eckenrode, J. (1991). "Gender Differences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Peer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396-409.
-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cultural-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 413.
- Paulson, B. L., &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6, 317-324.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Pryor-Brown, Lannie; Cowen, Emory L.(1990). Stressful life events, suppor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psychosocial development psychology*, 11, 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eisman, J. M., & Shorr, S. I. (1978). Friendship claim and expectations among child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913-916.
- Ramsey, P. G. (1991). *Making friends in school: Promotion pe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ebald, H. (1986). Adolescents' Shifting Orientation toward Parents and peers: A Curvilinear Trend over Recent Deca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13.
- Smoller, J., & Youniss, J. (1982). Social development through friendship.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Springer-Verlag.
- Webster, N., & McKechnie, J. (1978). Webster's Ne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New York: Collins World.
-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J.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 Wine, J. D. (1981). From defect to competence. In J. D. Wine (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원고접수일 : 2009. 9.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27.  
최종게재결정일 : 2009. 12. 14.

##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their own level of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Hye Gyeong Yun

Jee Yon Lee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by concept mapping and to find out the importance of each statement describing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and their own level of competence. For this, 18 students solicited, gathered and analyzed statements that 160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and wrote and then did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n addition, 156 students rated the importance of each describing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and their own level of compete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79 statements of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were solicited and as a result of concept mapping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were categorized as 'emotional characteristic', 'enterprising', 'group harmony', 'social skill', 'material factor', 'physical factor' and 'external strong force'. Second, except for 'group harmony' in all categories, importance of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and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competenc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To compare with the precedent study about high school students, they consider external categories as a factor of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but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ed internal categories divided into relationship formation and promotion as a factor of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As this study explored middle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in 7 categories, it suggested tha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having trouble with peer relationship and measurement scale considered characteristic of middle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Peer relationship competence, developmental stage, concept mapping